



갈보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갈보리 성경통독 150일 이번 주 범위는 오바다 1- 마태 16장까지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분량에도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 다음 주일은 본 교회 창립 18주년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더 충만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아울러 흠어져 생활하는 가족들을 초대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예배 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3. 각 선교회 회장, 공동체장들은 선교회와 공동체의 소개를 한장 정도의 분량을 써서 손조훈 집사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8주년 기념 책자에 실을 예정입니다(손조훈 집사 이메일 Jhon2470@gmail.com).
4. 2017년 바누아투 단기선교 팀이 여러 성도들의 기도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5일(수) 귀국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 지난 주 크리스찬 라이프지에 '이단, 사이비 & 거짓교사에 대한 주의와 경계' 에 대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현관과 친교실에 부착).
6. 처음 온 성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교회 적응에 도와주시기 바라며 공동체 예배와 선교회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7. 이성철(박영선) 목사 가정 이사했습니다. 87A Hobsonville Rd. West Harbour
8. 교민을 위한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일시: 2017년 7월 15일 (토) 저녁7-9시 장소: 한우리 교회당. 강사: 양은순 총장(미국 캘리포니아 히즈대학)
9.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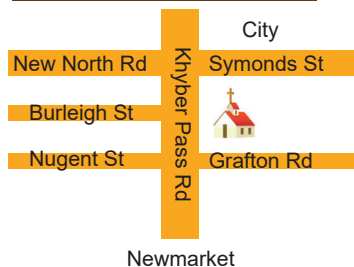
2017년 7월 9일 주일



2017년 표어 · '다음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신6:4-9)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AM 11:20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주일 2부예배	주일 PM 1:00	유 아 부	주일 PM 1:00
청년모임	주일 PM 3:00	아 동 부	주일 PM 1:00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청소년부	주일 PM 1:00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담임목사: 이태한

021-968-388 LTH-07@calvary.org.n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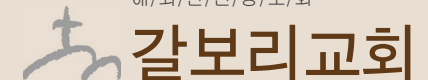
부목사: 이성철

021-563-634 logosid@hanmail.net

부목사: 박태신

021-077-8382 nuggy308@hanmail.net

해/외/한/인/장/로/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예배 안내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100:3-4
◎ 찬 송	주 예수 이름 높이어 36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
대 표 기 도	박덕철 장로
성 경 봉 독	로마서 11:33-36
찬양대 찬양	만민들이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태한 목사
찬 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살아계신 주(1,2절)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7월 교회일지

바누아투 선교: 6월 27일(화) - 7월 5일(수)
 금요저녁기도회: 7월 7일(금요일)
 창립주일: 7월 16일(주일)
 선교보고주일: 7월 30일(주일)

7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정덕수/이재홍
 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최희숙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유현남/민경아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최은수 집사
 다음 주일: 박병민 장로
 7월 19일 수요일: 김봉희 권사
 7월 19일 애찬: 최희숙 집사
 7월 23일 주일: 손조훈 집사
 7월 23일 청년부: 남수민 자매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청년 모임

오후 3시

성경공부

기도 / 김효설 자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정혜숙권사
성경봉독	에스터 3:1-6
설 교	성도의 자존심 /이태한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송	260장
주 기 도	다같이

금주의 기도제목

1. 날이 갈수록 성령충만하고, 서로 섬기며 화목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2.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혜롭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자라 다음세대가 잘 준비되도록.
3. 갖은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중앙아시아 k 국 강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는 다양한 날씨 속에서 팀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여러 곳을 이동하고 움직였습니다. 새롭고 귀하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비행기, 택시,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18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지만 일 주일의 컨퍼런스는 은혜로웠습니다. 일 년 만에 만나는 팀 동료들과의 교제와 말씀, 멀리 영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으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기꺼이 선택하신 비효율 부산의 협력 교회 목사님 부부께서 저를 보시러 컨퍼런스 장소에 오셨습니다. 휴가를 내어 K국에 방문하셨는데 제가 있는 A도시에는 컨퍼런스 일정때문에 못 오시고 대신 컨퍼런스 장소가 있는 인접 국가로 일부러 먼 길을 오셨습니다. 교통편때문에 제가 늦게 도착해서 잠시 얼굴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만남을 위해 두 분이 치르신 비효율적 여행에 많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하지만 두 분과의 만남은 큰 격려와 깊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휴가 7월에 두 달 동안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잠시 스코틀랜드에 들렀습니다. 지난 봄, 제가 있는 A도시에 방문하신 스코틀랜드 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 글라스고우에 왔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저와 같은 같은 선교단체 선교사로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이 분 댁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중에 맨체스터에 있는 한 부부댁에 초대를 받았는데 두 분 역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 하시고 은퇴 후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이곳에서 선교사 기도모임, 중독자를 섬기는 모임에 참석했는데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습이 큰 감동과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제목

-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발목 상태를 검진할 예정입니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 한국에 있는 동안 제게 필요한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충분한 쉬와 충전이 되도록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듯이 날마다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남은 한 해의 반을 경작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나하르 드림